

미노와시 아카리 아트전

미노와시 아카리 아트전은 매년 1 개월에 걸쳐 개최되며, 수백 개의 등롱 불빛이 우다쓰 보전지구의 거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습니다.

아트전 기간 중에는 전통적인 에도 시대(1603~1867 년) 상인 주택이 와서 등롱의 부드러운 불빛에 비춰져 전선이나 현대적인 가로등이 없는 보전지구의 분위기를 돋보이게 해줍니다. 이 기간에는 주변의 많은 가게가 늦게까지 영업합니다.

이 행사는 미노와시의 창조적인 가능성을 발견하고, 더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1994 년에 시작되었습니다. 일찍이 기후현은 등롱(기후초친)의 생산이 번성했으며, 그 주요 재료가 된 것이 미노와시였습니다. 근년에 기후초친은 조명으로서 뿐만 아니라 조형미술로서도 인기를 넓혀가고 있습니다.

아트전은 단기간만 전시되지만, 미노와시 아카리 아트관에서는 입상한 작품을 연중 전시하고 있습니다.